〈A1면에 이어〉

4월 총선, 불자후보들 성적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4월 10일 치러진다. 정확히 100일 남았다. 4년마다 돌아오는 국회의원선거는 불자후보들의 당선 여부에 불교계 관심이 집중된다. 불자의원 신행단체인 국회정각회 회원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역대 최장 '지각 개원'이라는 오명을 쓰며 2020년 7월 개원한 21대 국회는 20대보다 다소 줄어든 불자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당시 21대 국회정각회 창립총회에선 더불어민주당 24명과 미래통합당 13명 총 37명의 불자의원이 회원으로 등록했다. 20대 정각회에 40여 명이 가입했던 것보다는 적은 기록이다.

국회정각회가 전통사찰과 국립공원 등 다양한 불교계 현안을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다가오는 총선 결과에 여느 때보다 불교계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국가유산 본격화

5월부터는 문화유산 정책이 대거 변경된다. 지난 60여 년간 '문화재'로 관리되던 시스템이 '국가유산' 체제로 바뀌기 때문이다.

국가유산은 '과거 유물'이나 '재화'라는 느낌이 강했던 문화재 용어 대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국제 기준인 '유산'(遺産, Heritage) 개념을 적용한 체계다. 문화재 개념은 지난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과 함께 60여 년 동안 사용돼 왔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 내 △문화유산(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자연유산(명승, 천연기념물) △무형유산으로 분류돼 보존관리된다.



태고종 전 총무원장 호명 스님이 대종사 법계증을 종정 운경 스님으로부터 전해 받은 모습.

태고종 최고 법계 '대종사' 18명 탄생

전 총무원장 호명 스님 등 품서
운경 스님 "적자종단 긍지 갖자"

태고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에 18명의 스님이 새로 탄생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은 12월 19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3층 법륜사 대불보전에서 '대종사 특별법계고시 품서식'을 봉행했다. 태고종 종정 운경 스님을 증명으로 봉행된 품서식에서는 총 18명의 대종사가 탄생했다. 운경 스님은 전 총무원장 호명 스님을 비롯해 18명의 대종사에게 각각 가사고리와 불자를 선물하며 법계증을 수여했다.

운경 스님은 법문에서 주장자를 내려친 후 "한 번의 주장자 소리가 삼천대천세계를 무너뜨리고 중생의 무명업장을 다 녹여버린다. 이 소식을 알겠는가"라고 일갈하며 "종단 최고 지도자 반열에 올라 선 스님들께서 새로운 총무원장을 중심으로 종단의 발전을 기하는 데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자리에 전직 원장 부원장 등이 모두 계시다. 태고보우 국사의 법통을 잇는 적자종단의 긍지를 갖고 일로 매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축하인사말을 통해 "새로 종정에 추대된 운경 큰스님을 모시고 대종사 법계품서식을 갖게 돼 너무 기쁘다"면서 "이는 전 총무원장 호명 스님이 만들어 놓은 안정된 기반 위에서, 또 오늘로 임기가 만료된 고시위원장 재홍 스님이 탄탄히 법계고시 기틀을 다져놓은 덕분"이라고 말했다.

신중일 기자

새해 종단 초월한 대축전 열린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1월 30일 서울서 개최키로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정관계 등 각계 인사 초청해
국운융창 기원·문화공연도
신임 사무총장엔 진호 스님

국내 30개 주요 불교종단 협의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을 초청해 국운융창을 기원하는 불교 대축전을 개최한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진우, 이하 종단협)는 12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불기2567(2023)년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새해맞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불교 대축전'은 1월 30일 오후 4시 서울 강남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800명을 초청해 열린다. 초청 대상은 각 종단 임원과 주요사찰 주지, 정관계 및 사회 각계 인사, 재가대표 등이다. 1부 불교문화공연과 2부 법회 및 신년하례, 3부 공양 순으로 진행되며 세부 프로그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종단협은 또 지난 2014년 실시한 회원종단 현황 파악사업을 10년째 되는 내년에 실시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등 전국적 질병 발생 시 사회 안전망 확보에 필요한 협회 회원종단의 변화된 사항을 정리하는 의미도 담겼다. 이 밖에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봉환 추진 논의를 일본불교계와 재개한다. 유족 입장 등 봉환에 문제가 없는 무연고 유골을 우선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한 대외적으로 해외불교계와의 교류 정상화에 맞춰 해외불교인사 연등회 초청, 한국불교지도자 해외성지 순례, 제6차 중국세계불교포럼, 제24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회의 일본대회 등 다수의 해외 교류행사가 추진된다.

임기 만료를 앞둔 종단협 사무총장 도각 스님 후임으로는 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이 투표를 거쳐 당선됐다. 임기는 내년 2월 18일부터 3년간이다. 진호 스님은 "하심하는 마음으로 회원스님들을 잘 모시고 호평받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신임 감사는 삼론종 총무부장 근혜 스님, 대승종 총무부장 진공 스님, 법화종 총무부장 현묵 스님이 임명됐으며,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10억1760만원, 특별회계 6억900만원으로 확정했다. 협의회는 또 6년간 사무처장을 맡았던 진경 스님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종단협 회장 진우 스님은 "협의회가 여러 안건을 소화해내고 무탈하게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드린다"며 "불교중흥의 토대를 마련해 내년도 역사에 남을 한 해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사찰 문화재관람료 감면 예산 554억원

문화재청, 확정 결과 발표
총 예산 1조3659억원 확정
조선왕조실록박물관은 증액

국가 문화유산 정책·관리 예산 규모가 약 1조3600억원에 이르게 됐다. 이중 사찰 문화재 관람료 감면에 따른 예산은 554억원으로 확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2024년도 예산(기금 포함)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1조3489억원보다 170억원(1.3%) 증액된 1조3659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지난해 12월 21일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반영된 주요 사항은 세계유산보존관리 지원(58억원), 역사문화권 정비(18억원), 국립조선왕조실록전시관 운영(15억원), 국가유산 광역 활용기반 구축(6억원), 국가유산 경관 개선(5억원), 어린이 무형유산전당 건립(5억원) 등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사찰 문화재관람료 감면 정책에 따른 예산은 554억원이 확정됐다. 이는 1월부터 12월까지 국가지정문화재 관리 사찰 65곳의 참배객 규모를 조사해 결정한 것이다. 2023년 예산은 421억원으로 이는 4월부터 12월까지를 조사해 정한 것이었다.

올해 5월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 국가유산'의 비전을 새로 수립했다. 국민의 삶과 조화를 이루는 국가유산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미래가치를 적극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 체계(패러다임)를 대폭 전환하고 있으며, 2024년 예산은 이러한 비전과 방향성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다.

회계·기금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1조2067억원으로 올해(1조1899억원)보다 168억원(1.4%) 증액됐고, 문화재보호기금은 1592억원으로 올해(1609억원)에 비해 17억원(1.1%) 감액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문화재 보존관리 및 보호 8253억원(문화재 보존관리 6036억원·문화재 보호 928억원·궁능원 관리 1289억원), 문화재 활용 984억원, 문화재 국제교류 622억원, 문화유산 교육연구 793억원, 문화재 정책기반 구축 1803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매장문화재 진단조사 비용 지원(50억원) △사회적 약자 디지털 기반 조성(27억원) △창덕궁 돈화문 보수(20억원) △우수 이수자 전승활동 지원금 지원(17억원) △K-공유유산 활용기반 구축(15억원) △국가유산 광역 활용기반 구축(6억원) △국가유산 경관 개선(5억원) 등이 내년 주요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다.

문화재청은 "국가유산과 국민들의 공존과 상생을 통해 지속 가능한 보호방안의 기틀을 마련하고, 국가유산이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경제 발전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철저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출가 장려 콘텐츠 조계종이 지원한다

미래본부 예산 4000만원 확보
교재·방송자료·애니메이션 등
수집해 출가홍보에 활용키로

지속적인 출가자 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조계종이 출가 확대를 위한 콘텐츠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조계종 미래본부 출가장려위원회(위원장 혜일)는 12월 19일 서울 전법회관 3층 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출가 관련 각 기관·부서 사업 계획 및 출가장려 방안을 논의했다. 출가장려위는 내년 출가자 감소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외국 사례와 각 출가 정책별 발전방안을 다루면서 출가를 주제로 한 종책토론회를 2회 개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출가 관련 사례, 경전 문구, 어록 등을 수집해 교육교재와 홍보 및 방송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출가인연 사례를 중심으로 애니메이션과 동영상 콘텐츠 생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집된 사례를 출가홍보에 사용한다.

종단 외부적으로는 출가를 주제로 한 부처님오신날 특집 다큐멘터리 제작도 검토했다. 다큐멘터리가 제작되면 출가인구 절벽시대에 무엇이 필요한지, 출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 MZ세대 스님들의 출가 이야기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길 전망이다.

위원장 혜일 스님은 "포살에 참여하는 스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은 스님 숫자가 많지만 더 이상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다"며 "출가장려위원회가 지혜를 모으자"고 당부했다.

회의에서 교육원은 현재 운영 중인 출가상담사를 확대하고 찾아가는 출가상담으로 상담 건수를 높여 잠재적 예비출가자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온·오프라인 추가 홍보 확대, 교구본사 출가홍보 현수막 설치, 종립학교 및 포교원 산하단체 연합행사 시 영상상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수교육에서는 '발심, 출가 어떻게 이끌 것인가' 강의를 진행하고, 교법사와 군법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를 위한 출가장려 강의도 마련할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